

농어촌공사 김해·양산·부산지사 '영농도우미' 활동 실시

윤 차진형기자 | 승인 2025.11.06 17:48 | 11면

김해 청년창업농 감 재배 농가서 감 수확·선별 작업 구슬땀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지난 5일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위치한 청년창업농 감 재배 농가에서 영농도우미 활동을 진행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손영식) 김해양산부산지사(지사장 서정훈)는 지난 5일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위치한 청년창업농 감 재배 농가에서 영농도우미 활동을 진행했다.

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고,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. 김해양산부산지사 직원 12명은 감 수확 및 운반, 선별 작업 등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.

이날 도움을 받은 농업인은 "어머니와 둘이서 어떻게 수확할 지 걱정이 앞섰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도움을 주셔서 수월하게 감 수확을 할 수 있었다"고 감사를 표했다.

서정훈 지사장은 "최근 잦은 기상변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"며 "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매년 이어 나가겠다"고 밝혔다. 차진형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차진형기자